광주·전남 혁신기업을 찾아서 : 패스투웨이

기술에 상상력 결합…관광의 새로운 가치 더한다

인공지능·증강현실 융합…'통합 관광 플랫폼' 구축
지역 관광지·지자체 협력…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최근 인공지능(AI)·증강현실(AR)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관광 분야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관련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기술과 결합한 다양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관광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AI 기반 여행 가이드부터 몰입형 문화 체험까지 국내외 방문객 모두에게 더 편리하고 개인화된, 지속 가능한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MZ세대 및 액티브시니어 등이 새로운 관광소비 주체로 떠오르며 관광 형태의 다양화·개인화가 강화됨에 따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 서비스 및 제공 방식이 등장하며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이 상상력을 결합해 관광을 또 다른 문화적 경험으로 재탄생 시키고 있는 것이다.

깃발을 든 관광 가이드 대신 스마트 기술이 관광객들을 현지인들의 삶 속으로 유입시키며 관광객과 거주민 간의 구분과 경계를 허물고 있다.

기술을 통해 관광객의 경험을 혁신하고 관광 공급자에게는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광주 동구 I-PLEX에 위치한 '패스투웨이'(Path2Way, 대표 김태균)는 지난해 AI와 AR 기술을 융합한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업계에 첫 발을 뗐다.

김 대표는 'AI 컨퍼런스 광주(AICON GWANGJU) 2024' 전시를 관람하며 AI 기술이 관광 경험에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후 인공지능사관학교 과정을 수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관광객의 몰입형 체험을 돕는 어플리케이션 'Snapic'(스내픽)을 개발했다.

Snapic은 '유적스팟'(Heritage Spot)과 '포토스팟'(Photo Spot) 기능을 동시에 구축한 통합 관광 플랫폼이다.

실제 '유적스팟' 모드는 관광객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실제 유적지나 문화유산을 비추면 대상과 관련한 AI 기반 해설 창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이후 AI와의 문답 대화(Q&A)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해설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토스팟 모드는 사용자가 선택한 사진의 촬영 위치를 안내하고, 도착 시 사진이 오버레이 되어 동일한 구도로 재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태균 대표

AI·AR 기술을 결합해 관광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사용자에게는 특별한 촬영 경험을 전하는 등 독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을 통해 사람과 지역, 그리고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김 대표는 축제스팟, K-Culture 스팟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 콘텐츠 확장 구조를 추진하고 있다.

또 향후 AI 데이터 분석 및 UGC(사용자 생성 콘텐츠) 리워드 시스템을 결합해 지역 관광지, 지자체, 브랜드와 협력하는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성에 '패스투웨이'는 지난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박람회인 CES 2026에 참여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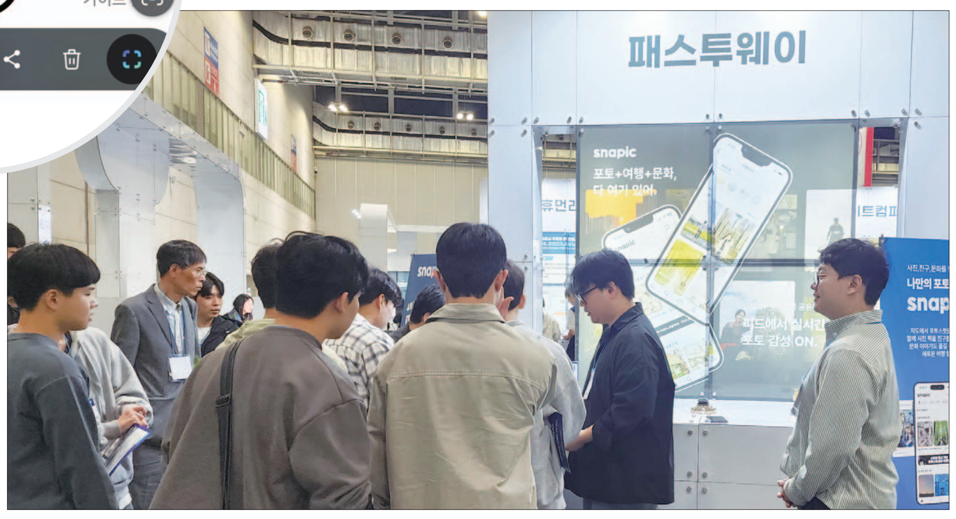
특히 실제 유적지를 배경으로 한 현장형 관광 서비스를 전시장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남대문, 백제 금동대향로, 반가사유상 등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을 축소한 미니어처 모형을 전시물로 구성해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 인공지능(AI) 학술대회인 '글로벌 AI 컨퍼런스(AICON) 광주 2025'에도 참여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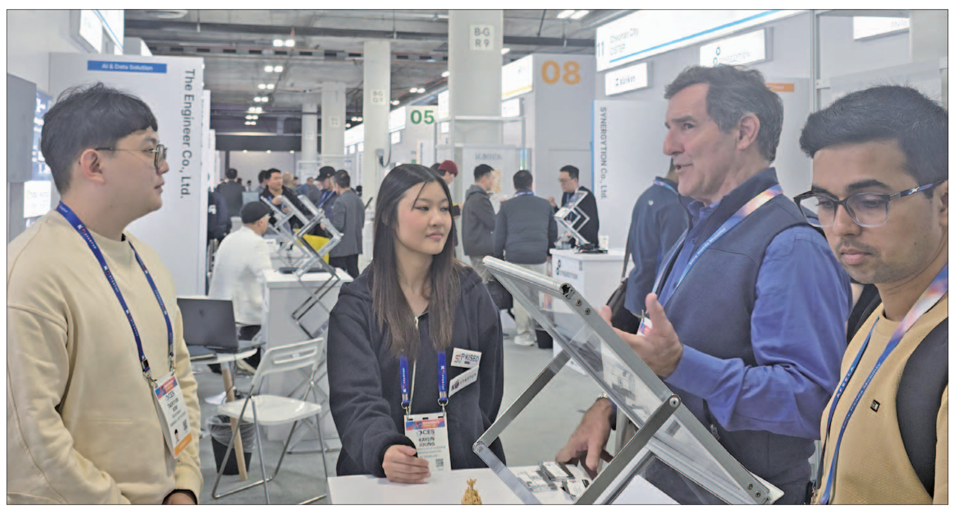
김태균 패스투웨이 대표는 "패스투웨이는 이름 그대로, '같은 길을 가더라도 우리와 함께라면 새로운 길이 된다'는 신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napic은 기술보다 '경험'을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다"며 "AI와 AR이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도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연결의 기술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관람객이 직접 '배우고, 참여하고, 재현하는 관광의 미래'를 경험하도록 해 AI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여행과 문화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패스투웨이는 지난해 세계적 인공지능(AI) 학술대회인 '글로벌 AI 컨퍼런스(AICON) 광주 2025'에 참여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패스투웨이'는 지난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박람회인 CES 2026에 참여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익스플로라토리움과 체험형 과학관 건립

전략적 파트너십…2032년 개관 목표
정의선 회장 "더 나은 미래 위한 것"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세계적인 과학관 '익스플로라토리움'과 손잡고 미래 세대를 위한 체험형 과학관을 건립한다.

과학관은 오는 2032년 개관을 목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에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익스플로라토리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체험형 과학관 건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체결식에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장재훈 부회장, HMG브랜드경험담당 지성원 부사장, 익스플로라토리움 윌리엄 F. 멜린 이사회 의장, 린지 비어만 관장, 앤 리처드슨 최고경험책임자(CXO) 등 현대차그룹 및 익스플로라토리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익스플로라토리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현대차그룹 HMG브랜드경험담당 지성원 부사장, 장재훈 부회장, 정의선 회장, 익스플로라토리움 윌리엄 F. 멜린 이사회 의장, 린지 비어만 관장, 앤 리처드슨 최고경험책임자.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인류와 미래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며 "익스플로라토리움과 함께 조성할 체험형 과학관은 개개인의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차별화된 과학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9년 물리학자 프랭크 오펜하이머에 의해 설립된 익스플로라토리움은 직접 만지고 실험하며 배우는 '핸즈온' 전시 기법을 처음 도입해 현대적 의미의 체험형 과학관 모델을 정립한 것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뮤지엄'의 하나이자, '20세기 중반 이후 개관한 가장 중요한 과학관'이라고 평가했으며, 전 세계 과학관의 80% 이상이 익스플로라토리움의 체험형 전시 모델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연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익스플로라토리움은 현재 과학뿐 아니라 예술, 심리, 사회문화, 기후변화 등 광범위한 주제의 650여종 전시물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학생 및 교사, 관람객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과학 교육 혁신의 허브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체험형 과학관은 관람객 누구나 직접 탐구하고 실험하는 참여형 배움의 공간"이라며 "익스플로라토리움과 함께 국내 과학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고, 첨단 미래 산업을 이끌 창의적 인재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송호성 기아 사장,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장애인고용촉진대회서 포상

기아는 송호성 사장(**사진**)이 '2026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노동자를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송호성 사장은 기아가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도록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아는 '고객 중심, 사람 중심'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고 있다.

또 임금·업무·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비장애인 간 차등 없는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채용 단계에서는 장애인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벗어나 2024년 독립적인 장애인 특별채용 전형을 신설, 장애인 지원자가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입사 후에는 사옥 및 연수시설에 배리어 프리 환경을 구축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특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장애 직원이 불편함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2025년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음'을 설립해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삼성전자 "갤럭시워치 차고 에버랜드서 러닝해요"

삼성전자가 5월 17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러닝 이벤트 '갤럭시 워치런 @사파리'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갤럭시 워치런 @사파리'는 참가자들이 갤럭시 워치를 착용하고 에버랜드의 로스트밸리, 사파리월드, 장미원으로 구성된 4.82㎞ 러닝 코스를 달리면서, 갤럭시 워치의 다양한 기능을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에버랜드에서 차량에 탑승해 동물들을 만날 수 있었던 로스트밸리와 사파리월드를 직접 달리는 특별한 코스를 경험할 수 있다.

참가 접수는 삼성닷컴에서 17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신청 가능하며, 동일 기간에 삼성스토어 러닝 클래스 참석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첨 접수도 운영한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동반 1인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다. 장승기 기자 sky@